

복숭아나무를 가해하는 나무좀류 (Bark Beetles)의 발생소장 및 억제방제

권태영, 김산영, 최충돈, 권용정¹

경북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시험장, ¹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

복숭아나무를 가해하는 나무좀류의 발생과 피해정도 그리고 살충제 처리방법에 의한 나무좀류의 방제효과에 대하여 1999년부터 2개년간 청도지역 신백도과원을 중심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무좀류의 이동시기는 4월상순부터이며 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월상·중에 이동이 끝나며 발생최성기는 4월중순경이나 이시기는 복숭아꽃의 만개기로서 약제살포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 산간지근처의 과원에서 피해가 많았고 유목이 성목에 비해 피해가 많은 편이었으나 일부 성목에도 피해가 있었다. 약제방제효과는 메프유제 1,000배액을 개화기전 1~2회, 개화전 및 만개후 2회로 구분하여 약제처리를 한 결과 개화기전 3월하순, 4월상순 2회 살포구가 2년평균 86.4%로 가장 높았으며, 개화기전 4월상순과 4월하순 살충제 처리에 의한 방제효과는 치아메톡삼과립수화제가 78.6%, 메치온수화제 81.4%, 똑심수화제 62.8%, 메프유제 85.7%를 보였다. 지역별 피해조사에서는 산간지 및 경사지가 많은 청도지역에서 피해정도가 높았고 가해하는 나무좀류중 사과나무등근 나무좀의 유인량이 가장 많았다.